



임마누엘 [믿음호] Vol.1, Mar 30, 2014

Emmanuel





Contents

Vol.1, Mar 30, 2014

I. 행전스타일 특별기획 _예배의 현장	04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절 특집기사: 기다리는 사람들
	06	크리스천 박해지도
	08	강너머에서 기다리다 & 북한이야기
	10	청년부 탈북 자매들 인터뷰
	12	크리스천 박해 현장과 기도제목 기사
		나는 이렇게 예배한다
	14	압제 속의 예배 : 마르고 닳도록
	16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가정, 학교, 직장
	22	가정예배
	26	목장예배
	30	공예배의 현장
	32	형제교회 이야기
	34	북인도 가정교회
		II. 빛과 소금의 생각
	36	시가 있는 풍경
	37	전도팀
	38	어머니의 기도
	40	나를 세우신 말씀
	44	선교지에서 온 편지
	45	아마존 스마일
	46	YOUNG VOICES OF EMMANUEL
		III. Fortran Drive 사람들
	48	친구소개장
	50	방 to 방:성가대실의 사랑이야기
	54	예측과의 만남
	56	나의 찬양
	58	임마누엘 레시피
	60	함께 읽는 동화
	62	크리스천 영화방
	64	믿음간증
	70	텃밭이야기



부활을 바라보며

한 국을 방문하거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는 내내 바다만 보이지만, 미국 내륙으로 여행할 때 비행기 위에서 작은 창으로 내려다보면, 집들이 코딱지만 하게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고 작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아웅다웅 다투며,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예쁘니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며 교차하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조감도(鳥瞰圖, bird's-eye view)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의 눈으로 보는 정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바짝 붙어 서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착하며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들로 서로 다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의 높이에서 보면, 그런 높이가 아니라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뒤로 물러나서 보면, 우리는 “내가 세상을 너무 치사하고 웅졸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얽매어 살지 마시다.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며, 이웃을 만나며, 짜증이 날 때, 피곤하고 지칠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꺾꺾 누르고 눌러도 미움이 뻘뻘 솟아날 때,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봅시다. 사람들을 보다 관대하게, 보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봅시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묵상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제목으로 소설을 썼다면, 러시아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도스토예프스키는 부활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도스토예프스키는 제정 러시아를 전복시키려는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어느 날, 그는 총살 형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말뚝에 묶이고 두건으로 눈이 가려집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조준을 한 후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숨 막히는 긴장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고, 황제의 특사가 내려옵니다. 사형은 중지되고, 대신 8년간 시베리아 강제노동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살아나며, 그 후 한 농부로부터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시베리아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천하게 여기며 멸시했던 불행한 농부들이 형제로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고귀하게만 여겼던 자신이 그들과 동등 된,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집착했던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니, 기적처럼 갑자기 모든 증오와 원한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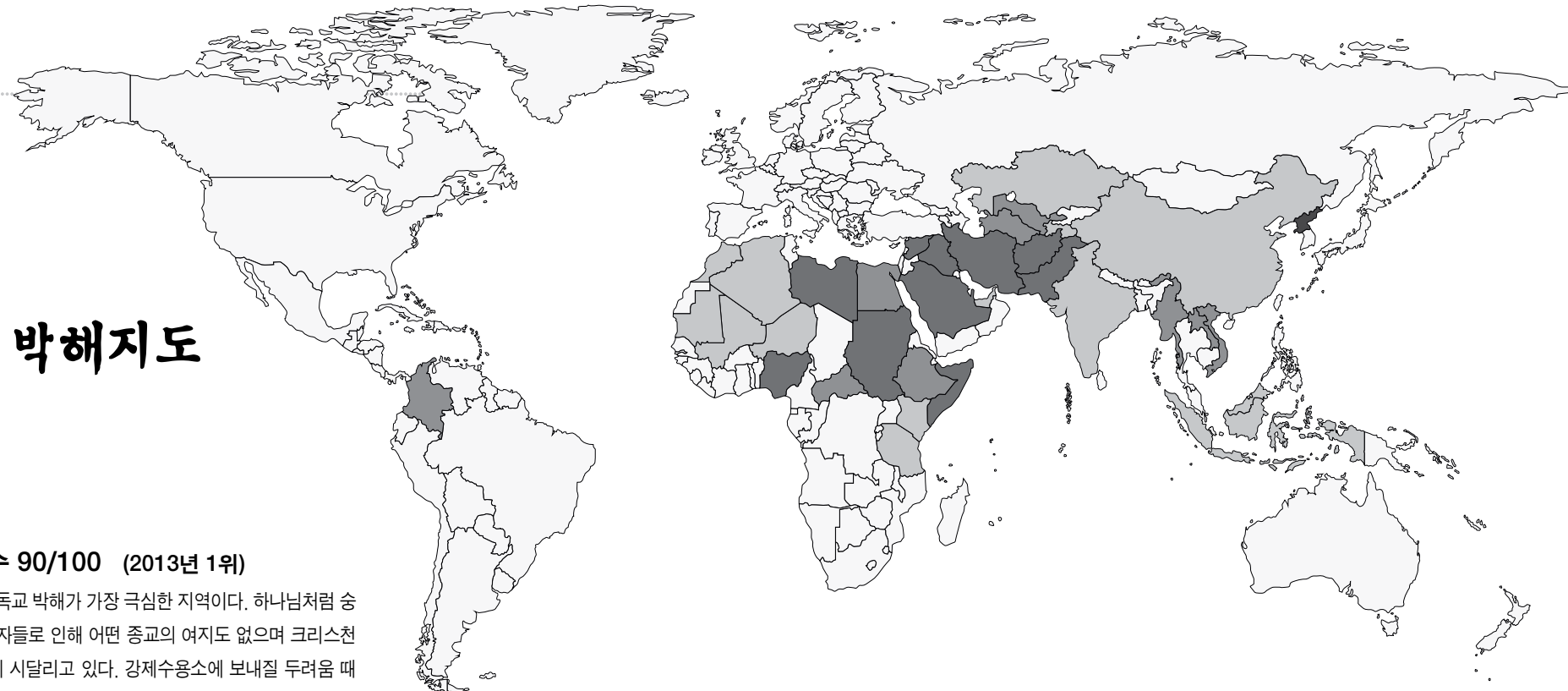
울해도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과 살아가던 세상을, 조감도가 아니라 비행기의 창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현실에 집착했다면, 그는 태어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고(빌3:5-6),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으며(행22:25-29), 당대 저명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배운 학자로서(행22:3, 26:24) 세상 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종속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자랑거리를 뚝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르게 될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fact)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나에게도 임할 역사적 현실(reality)입니다. 온통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암울한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를 겨울처럼 길고 긴 듯하지만, 언젠가 봄기운이 밀려올 때, 우리는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 속에 묻힌 검은 흙, 죽음의 땅속에서 ‘새 생명’의 파란 싹이 돌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재이십니다.

부활의 그 날(that Day)이 오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롬8:21-22). 그 날을 바라보며 삽시다. 티격태격 다투며 살아가는 웅졸한 자세를 넘어, 삶과 죽음조차 넘어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삽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영원의 세계를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1:25).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실패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삽시다. 바울처럼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아불로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물을 줍시다. 하나님께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고전3:6).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 손원배 목사



크리스천 박해지도

1위 북한 박해지수 90/100 (2013년 1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김정은과 그의 전임자들로 인해 어떤 종교의 여지도 없으며 크리스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 강제수용소에 보내질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못한다. 누구든지 종교활동에 가담한 것이 발견되면 체포, 실종, 고문,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다.

2위 소말리아 박해지수 80/100 (2013년 5위)

이슬람이 대다수인 소말리아에서 극소수인 기독교 공동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지도자들과 정부관리들은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을 박해하며 결국은 소말리아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무장 이슬람 단체인 Al-Shabaab의 극렬한 박해가 자행되며 2013년 이들에 의해 10명의 크리스천이 살해당했다. 믿는 자들도 배신의 공포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숨기고 불신하는 경향이 높다.

3위 시리아 박해지수 79/100 (2013년 11위)

시리아 내전이 격렬해지면서 크리스천 박해도 점점 과격화되고 있다. 국가가 점차 이슬람화되어가며 크리스천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 납치, 상해, 살해 등이 보고되었고 교회들도 파괴되고 있다. 2013년에는 이슬람 민병대가 Sadad의 크리스천 거주지를 공격, 45명을 살상하고 상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4위 이라크 박해지수 78/100 (2013년 4위)

전반적으로 크리스천 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테러리스트 과격 단체가 증가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크리스천의 소탕으로 이는 정부의 총체적 지원으로 극렬화되고 있다. 매 2-3일꼴로 크리스천이 살해, 납치, 학대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 자치 쿠르족 지역에서도 크리스천의 보안 상태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5위 아프가니스탄 박해지수 78/100 (2013년 3위)

국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슬람 극렬 주의자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기독교는 서방 외래 종교로 간주되어 아프간 문화, 사회, 이슬람에 적대적으로 여겨진다. 이슬람을 떠난 개종자는 배교자로서 가족, 사회, 지역 정부로부터 불이익과 압력을 받는다. 2013년에는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사형이 입법 제안되었고 공식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Open Doors 2014년 World Watch List
<http://www.worldwatchlist.us/world-watch-list-countries/>



강 너머에서 기다리다

압록강. 이미륵의 자전 소설에서 일본 형사에 쫓기던 그가 넘은 강이다. 그는 30여 년을 독일에서 살며 그 강을 그리워한다. ‘압록강은 흐른다’. 그 강은 그때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며 오늘도 강을 건너는 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남으로 임진을 넘어 한강으로 들어올 자들이 북으로 북으로 간다.

그 강 너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생사를 가르는 강을 넘어온 그들이 만나는 새 땅의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을 건너온 절박한 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준비하지 않아도 강 너머 저편의 첫 만남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말이다. A 선교사를 만났다. 그 또한 감히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꼈다고 착각한 시절도 있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아온 터라 그들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다. 멋지게 극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었고 55세에 선교사가 될 것을 서원하여 이제 그 길이 십 년째이다. 마지막에 부름 받은 포도원의 일꾼처럼 더욱 감사하다.

한 탈북 가족의 아들은 안가에 도착하여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그의 평생 처음 들어 본, 바로 찬송가였다. 북한에서 공적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1960년대 초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분명 믿음의 그루터기는 남

아 있다. 또한, 탈북민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북한으로 되돌아간 이들도 있다. 그리하여 훗날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선교는 북한을 향한 한국 교회의 선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선편, 미혹케 하는 영, 악한 영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통치하심을 선편하는 것!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란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엘리야의 선편이 필요한 때이다.

대북사역은 온 크리스천이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한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이 느헤미야 시대 그들이 아니었던가? 북한 사역은 이 시대 우리의 할 일이다. 지금은 구호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는 사역을 위한 의사결정자나 구제의 손길이 아니다. ‘나의 열심’을 벗어나 오로지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근거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하지 않음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때이다. A 선교사는 요즘 중학교 때 읽었던 조지 무러의 ‘기도의 응답’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기도의 후원자를 바라기 때문이다. 미주 교회들이 기도와 재정, 신뢰와 겸손 그리고 인내로 하나 될 때 북의 여러 교성은 무너진다.

이제는 ‘나 때문에’ 저들이 아프고 ‘나 때문에’ 저들이 지옥에 갈 것을 알기에 나의 완전한 희생을 드리며 강

너머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A 선교사는 말을 맺었다. 지금쯤 그는 강을 건너 자의 첫 만남이 되었을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자에게 그가 선 땅은 요단 저편이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국가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나누어준 가방에 헬렌 켈러의 말이 적혀있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성공이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그때’가 아닐까?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임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의 손을 모은다. - 편집부 이윤선

북한 이탈주민(탈북민) 현황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최근 국경경비대에 ‘탈북하다 체포된 주민에 대해 총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최근 탈북을 준비하거나 탈북을 하다가 체포된 주민들에게 엄한 형벌을 줄 것이라는 명령이 국경경비대에 하달됐다”면서 “특히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이 반항하거나 도강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뺨(탈북) 경우 이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총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2/13/2014)

지난해 유엔 통계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의 만성영양 불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강도로 39.6%였다. 그나마 가장 상태가 좋은 평양에서도 19.6%, 북한 전체적으로는 열 명 중 셋이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말라 있다. 2011년 자료에선 만 11세 남한 남자아이는 평균 키가 144cm, 몸무게가 39kg이지만 북한 아이는 125cm, 23kg으로 큰 차이가 났다. 생후 1000일까지의 영양 공급이 충분치 못하면 커서 아무리 잘 먹어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 (출처: 동아일보 1/30/2014)

꽃제비 아이 / 백이무

옥수수보따리 이고 가는 저 아저미
잠깐 걸음을 멈추고
여기 한 번만 뒤돌아 봐 주세요

제게 만일 옥수수 한 알만 주시면
감았던 눈을 뜨고
힘들지만 한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알만 주시면
정신 들어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설 것 같아요

옥수수 세 알을 주시면
다시 기운 내어
이제라도 막 걸어갈 것 같아요

그보다도 착한 아저미
만약 옥수수 한 이삭만 제게 주시면
내게는 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삭을 가슴에 품고
단숨에 저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쌀 구하러 간 엄마를 찾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말아요, 아저미
안 주고 가시면 저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빠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다시 못보고...



탈북 두 자매들과의 만남

첫 번째 자매 이야기

저는 중국인 남편과 어린 자녀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셨다면 6개월이면 가족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 언젠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혼마저 행복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불쌍해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더 알아 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더 알아 북한 복음화에 꼭 쓰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자매 이야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던 소녀는 먹고사는 게 너무 힘겨워 고철을 주워 중국으로 내다 파는 일을 하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중국으로 시집가려고 열여덟 살 때 탈북했다.

중국에서 만난 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며 기도하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1주일 기다린 후 시집가려고 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단동의 어느 집사님과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세간살이를 하면서 신변보호도 받고 하루 세 번씩 예배드리며 열심히 성경 읽는 생활을 계속 훈련시키셨다. 그 후 단동에 오신 선교사님과 매주 성경공부를 하며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 체험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미국으로 가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주셨고 결국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시키실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았던 제가 큰 바닷속에 던져진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첫 사랑이 식지 않고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로 남기 원하며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잘 감당해서 주님 나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자매와의 만남에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잘 훈련되어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날, 북한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길 사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믿음을 소유한 아름다운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북녘땅을 향해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통일을 이룰 준비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온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가 통일의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하박국 2:14)이 북한 땅에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한번의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한다.

- 편집부 김정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해현장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11:9)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유럽의회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특별 조사위원회는 첫 연례 보고서(2014)에서China, Egypt, Eritrea, India, Iran, Iraq, North Korea, Libya, Mali, Nigeria, Pakistan, Saudi Arabia, Syria, Tunisia, and Uzbekistan 15개국을 심각한 위법국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협박과 차별,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Peter van Dalen, 유럽의회 회원)

미국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위원회도 연례 보고서에서Burma, China, Eritrea,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Sudan and Uzbekistan, Egypt, Iraq, Nigeria, Paki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Vietnam 15개국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m>)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천의 삶의 질이 악화하는데 비례해 박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크리스천 순교자보다 이 시대의 순교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21세기 이 땅의 최근(2014년 3월) 박해 현장의 작은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3)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미국**: -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며 공공 장소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한 소송 제기
예) 세계 무역센터 잔해에서 가져온 십자가를 그라운드 제로 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을 반대
- 크리스천 랩퍼가 동성 결혼 반대에 대한 노래 내용으로 살해 협박 당함
- **나이지리아**: 무장 BOKO 하람 그룹과 연관된 테러리스트들이 최근 16명의 어린이와 여성 크리스천들을 총살 또는 산 채로 화형함
- **수단**: 수도 근처 오델만의 교회가 이슬람 지역내 위치했다는 이유로 철거됨
- **탄자니아**: 크리스천을 목표로 한 이슬람의 폭탄 테러 증가
- **이집트**: 지난 3년간 수많은 여성 크리스천들이 납치되어 실종 됨
- **리비아**: 7명의 시민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끌려나와 도로에서 살해당함
- **인도네시아**: 급진 이슬람 세력에 의해 교회 건설 저지 당함
- **스리랑카**: 불교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불교승에 의한 크리스천 박해
- **남부 인도**: 2012년에 비해 2013년 크리스천 박해의 사례가 2배 증가, 목회자 살해와 교회 붕괴
- **북한**: - 선교사 접촉이유로 33명이 사형집행의 위기
- 케네스 배 'I have not lost hope'

(출처<http://www.persecution.org>)

압제속의 예배 “마르고 닳도록”

매년 3월로 달력을 넘길 때마다 간절하고 애절한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우리만이 들을 수 있는 가슴 울리는 소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했던 선조들의 몸부림이 가슴 한켠으로 퍼져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요즘도 세계 곳곳 선교 현장에서 순교와 핍박의 소식이 들려오면 ‘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뜨거운 예배가 드리지고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압제 속에 감시받으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핍박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지나며 그 간절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퇴색되고 바래진 역사의 현장으로만 기억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에서는 선조들이 드렸던 그 뜨거움과 하나님을 사모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핍박의 현장 속에서 드렸던 예배의 생생함을 우리교회의 노부모님께 들어본다. 김태운 원로 목사님과 김봉희 사모님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청소년 시절이셨단다. 사모님의 고향은 50호 정도의 마을로 그 가정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유아기에는 교회에서 말씀 외우는 것 찬양에 유희(율동)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에 가는 것이 좋았다고 하시며 얼굴 가득 지으시는 함박웃음은 그 시절의 기쁨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

어린 시절에는 일본의 압제하였지만, 교회의 핍박이 그

리 심하지 않아 동네의 모든 가정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았으나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대동아 전쟁(태평양전쟁, 1937년)이 발발하면서 핍박은 심해졌다. 동네 교회들을 세 교회나 다섯 교회씩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순사들이 들어와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사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는 다른 교회로 교인들을 보내고 예배당 건물은 다 뜯어 그것으로 창고를 짓고 증탑은 가져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때는 찬양할 때 큰 종이에 가사를 적어 함께 찬양하곤 했는데 ‘우리 구주 나신 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 등등, ‘임금’이나 ‘구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많은 찬송의 가사는 검게 칠해 놓고,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찬송이 3백여 장 밖에 없었기에 예배에 열심이던 교인들은 다 외우고 있었고 하시며 승리한 군사의 표정을 지으실 때는 앞에 있는 사람까지 뿌듯하게 하셨다. 그러다 낮에 드리던 예배도, 사경회(부흥회)도 못하게 하여 다 없어졌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각지로 흩어지고 청년들은 강원도, 만주나 일본으로 피난 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 난리 통에 사모님의 오빠도 보국대로 나갔다고 하니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사모님의 어머니는 집에서 새벽에도 밤에도 줄곧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가족들은 감시 속에서도 친척 장로님 집에 모여 예배드리며 믿음의 계보를 이으셨다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도 환난의 시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게 하셨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손들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손을 들었는데 중학교 때는 손을 들지 않아 맘에 짐을 지고 계시다가, 해방되고 난 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울며 회개하셨다 하니 그 어린 맘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지금까지도 몸서리치시는지... 그 모습은 핍박의 무게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김태운 목사님께서서는 순교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내려오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일제는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며 이미 정복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내선일체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으로 귀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그마한 ‘가미다나’(필자 주 - 일본어: かみだな: 신토 제의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가미를 모시기 위한 선반 또는 제물상이다. 일종의 소형 사당이라고 볼 수 있다.)를 만들어 각 가정에 주고 섬기게 했으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국가의식이라 하여 천황 쪽으로 절하는 동방예배를 하게 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교회를 떠났으며, 일제의 순사들은 그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반복하였고 그로인해 순교한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의성 교회의 조사(전도사)이신 권중화 전도사님도 굳건한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반복되는 옥고와 고문에 시달렸으며 결국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곱 분(목사님도 그분들 중 한 분)이나 나왔다고 하며, 그 시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 계기였다고 회상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곳 경찰서 옥에 갇혀 계셨다 한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희생을 통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한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설교를 통해 일본에 저항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니 일본에게 얼마나 암적인 존재였을



까! 평양 경찰서에서 조사하다 큰 죄목이 없으니 농후회 사건에 연루시켜 의성에서 8개월 정도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의성 교회 권 조사님이 드나들며 도와드렸다 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이신 오정모 사모님께서 옥에서 잠시 풀려나오신 목사님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승리했느냐는 물음이었다 한다. 남편이 고문으로 맘이 변할까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한 예배를 드리셨을까?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눈물과 기도로 애가 닳도록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을 이겨낸 주님의 용사들이다.

1945년 8월 18일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을 사형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김태운 목사님은 8월 16일 학도병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줄 알고 있었고... 김봉희 사모님은 16살이 되어 정신대로 끌려가는 줄 알았었는데...

1945년 8월 15일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 편집부 흥정희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ko-kr.facebook.com/notes/페이스북하는-기독교인의-모임/주기철-목사님의-마지막-설교/159411940760287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내게 주신 간증의 주제는 정확히 요즘 목사님의 ‘예배 설교 시리즈 중 -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항상 스스로 되뇌는 말은 ‘코람데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 각오이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감정에도, 생각지 못한 사건 앞에서도,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사소한 분노 앞에서도 너무나 내 인간적인 죄의 본성이 쉽게 드러나기에 순간순간 닥치는 상황 속에 핑계치 못하고 비록 주님 앞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기에---. 항상 무슨 일이나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도 더 풍성해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의 말씀 아래 조명하며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삶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한 참됨과, 경건과, 옳은 삶의 태도와, 정결한 삶과, 사랑을 행하는 삶과, 칭찬받을 만한 태도로 살아서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좋은 향기요 편지가 되길 힘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자세이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나 설교를 쉽게 접하지 못하기에 내가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거룩한 책임감이 들게 된다. 비록 계산대에서 잠깐 한 두 마디 나누는 캐쉬어에게라도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꼭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음도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들 눈에 비쳐지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서의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내 모습은 얼마나 일치하는 태도로 살아가는지 가장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족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된다. 다행히---

음---. 좀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지만 며칠 전 남편 병원에서 남편이 동료 의사와 한 대화를 살짝 공개해보고자 한다. 남편 동료 의사가 자기 부인이 ‘스트롱 크리스천’이라 아이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려 한다고 하며 부인 이야기가 나왔단다. 그가 남편에게 “너희 부인은 뭐하나”고 물어보길래 남편은 “She is a really strong Christian”이라고 대답하며 너무 주님과 가까이 지내서 소평하려고 안가고 돈도 안 쓴다고 했더니 그 동료 의사가 너무 놀라워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다행히 남편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비록 이런 웃음 코드이긴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늘 예배자로 살아감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고맙았다.

이 간증문을 쓰기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조명하여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는 비록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보다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따르는, 세상을 두려워 하지 않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였다. 그는 예배자로서의 거룩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했고 그런 그의 모습



은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져 그는 대적들 앞에서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진실과 거룩과 정직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시선이 사자굴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셨기에 그를 주의 능력의 손길 아래 보호하셨고 그 결과 다니엘은 세상의 왕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에 공표되었다. 그는 삶의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행동한 삶을 살았고 지혜자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며 당당히 살아간 것을 목상하니 이것이 삶의 예배자임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간증문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한 번 더 깊이 목상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그런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서 어디를 가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다짐해 본다.

- 김민영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 직장에서



이해보다 믿음 Steal My Show...

어렸을 적, 우리 집 거실에는 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부자청년 (Christ and the Rich Young Ruler - Heinrich Hoffman, 1889)’이라는 그림이었는데, 마구간 같아 보이는 곳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 이들을 가리키시며 손짓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잘 차려입은 부자 청년이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머리를 떨구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 저들을 도우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테니,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100% 순종을 원하셨던 예수님과 고민하는 부자 청년.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 부자 청년의 근심 어린 표정과 유유부단함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깟 재산, 자기가 가진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걸 못 버려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나? “내가 만약 저 상황에 있었다면 난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꺼야.”라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겠지---.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전 재산이라고는 자전거 한 대, 농구공 하나, 야구 글러브 2~3개, 공책 몇 개, 연필 몇 개, 책가방 하나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도 생기면서, 100% 순종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알고 있지만, 그 청년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당장 자신의 눈 앞에 보이는 재산이 예수님을 따르고 얻게 될 영생보다, 아니 그 어떤 무엇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돌이켜 보면 언제나 제 삶의 중심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만족함을 느끼고 결국 그것들을 가지게 된 과정이 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시면 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실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즐겨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은 CCM 싱어송라이터인 토비 맥 (Toby Mac)의 ‘스틸 마이 쇼(Steal My Show)’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이 내 욕심과 뜻 아닌 창조자의 뜻대로,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부탁하는 찬양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뛰 어다니며 노력해서 준비해 놓은 쇼들의 메인 무대의 주인공은 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되도록, 주목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스태프 겸 조연이었습니다. 그런 쇼가 성공적이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고, 실망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기

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확률은 고작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011년 12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교회로 가기 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2012년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매년 비슷한 류의 기도제목 을 적어 가는 게 싫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2012년이 되길 간절히 바라자고---.

그리고 2012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에도 잠시 나오셨던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서 출장 오신 그분과 함께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만큼,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밤을 새우며 일을 해야 하지만,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일찍 들어와서 자고, 또 아침이면 새벽기도를 갑니다.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show’를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으로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노범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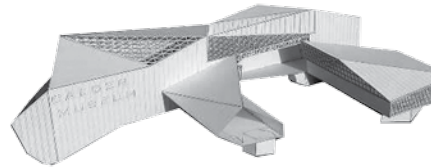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 학교에서



간증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증하는 것이 당연한 일 일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청년부의 찬양팀을 섬기고, 목자의 자리를 맡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걸 마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희 부모님이 너 자신에게 어떤 고마운 일을 해주셨니?”라고 물어보았을 때,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김현중 형제 과제물

저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중국에서 공부하고 현재는 플레전트 힐에 위치한 디아블로 밸리 칼리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건축 공부 참 어렵습니다. 막 건축공부를 시작한 풋내기 대학생이지만 왜 사람들이 건축을 ‘Architecture’가 아니라 ‘Architorture’라는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요즘 들어 많이 느낍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해야 하고요,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게 온종일 붙잡고 씨름해도 시간 투자한 만큼 나오질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출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점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만드는 일 역시 만만치가 않거든요.

작년 가을학기 파이널 기간이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화요일이었고 마감일이 사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계속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끔끔거리던 참이었습니다. ‘금요일 예배 가야 할 시간이네.’ 시계를 보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스튜디오에 남아있으면 다섯 시간을 생각하는 것에 더 투자할 수 있는데 혹시 과제 제출을 못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생각에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호세 교회까지의 거리도 저에게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뺏기고 피곤해 질 텐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순종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멋진 건물을 설계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한들 내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35:1)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난의 때에 먼저 예배하라 하셨고 “우리가 일어나 뵤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 3) 야곱은 이에 곧바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뵤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35:9)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며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찌지 라는 두려운 마음과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던 저에게도 하나님은 ‘예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디자인 때문에 끔끔거리던 문제를 그 다음 날 아침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결국 저의 파이널 과제가 클래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 비전 청년부 김현중

가정예배 탐방기



쌍둥이 현아, 현희네
김정은 c자매님 가정



초 근 몇 달동안 매주일 설교 후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어지는 숙제가 있다. 바로 가정예배이다. 지난 1월 23일 임마누엘 전교인들의 평생 숙제인 가정예배의 현장을 찾아 조영일 형제님, 김정은C 자매님, 일식이, 현희, 현아네로 가정예배 탐방을 다녀왔다.

저녁 8시 30분, 아이들에게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여덟 살 아들 일식아와 네 살 난 예쁜 쌍둥이 현아, 현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이미 가정예배에 익숙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인 거실에 조용히 앉아 두 눈을 꼭 감고 큰 소리로 사도신경(한글과 영어)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쩌나 또랑또랑한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예수사랑하심’(한글과 영어), ‘나의 사랑하는 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한절씩 불렀다. 창세기 1장부터 날짜에 맞춰 하루 1장, 각10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날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고 할아버지의 마무리 기도 후 다함께 주기도문(한글과 영어)과 주기도문 찬송을 끝으로 15분 정도 가정예배를 드렸다.

김정은 자매님의 친정 부모님께서 한국에서부터 가정예배를 사모함이 크셔서 6개월간의 딸과 사위집 방

문을 앞두고 가정예배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먼저 손주들과 묵묵히 가정 예배의 초석을 닦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의 중점방향이 예배인 것이 하나님의 응답 같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정은 평소 가정예배 드릴 것을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던 중 작년 9월, 우리가 미국에 오자마자 실천에 들어갔고,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처음 드린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셋과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애들 엄마와 아빠까지 모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가정예배를 시작해야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고, 교회의 작은 집단이 가정인 듯 예배의 초석이 가정예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할아버지 김용해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의 가장인 조영일 형제님은 “저희도 일주일에 주일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첫발을 내딛지 못했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동기를 부여하셔서 예배 횟수가 늘어남이 기쁘고 예배를 드릴 수록 틀이 잡히고 인내할 줄 아는 아이들로 바뀌어 이제는 예배순서에도 익숙해지고 가정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점차 영어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과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라고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다.

김정은 자매님 가정이 지난 5개월동안(2013년 9월~2014년 1월) 가정예배를 통해 얻은 영적인 결실은 이렇다. 먼저 공예배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을 가정예배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고, 매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니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와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가 풍부해졌다고 한다. 가족 관계가 끈끈해지고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간증을 통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자녀들과 대화시간이 많아져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항상 부족했던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 가정예배를 통해 한 단계 성숙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임재하심을 실감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잠언 저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22:6) 고 기록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때론 규모가 없어 보이는 가정예배이지만 날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가정은 예배를 통해 가정의 화목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인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정예배는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대잇기에 가장 좋은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있다. 가정예배는 21세기 첨단인 시대, 보여지는 것과 들리지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예배자의 삶,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자라게 하는 믿음의 산 교육이 될 것이다.

- 편집부 김정신



행복한 가정예배! 축복받는 가정!

“가정예배,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



조다윗 목사

“가정예배 드리면
드림(Dream) 가정 됩니다.”



김태오 목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가정에 목자와 주인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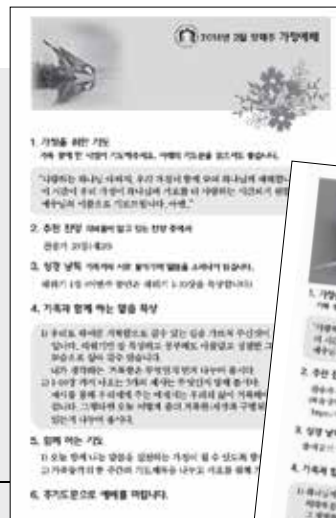


조종연 목사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발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유소진 목사



가정예배 교안이
매 주 새신자환영 데스크 옆 테이블에 준비 됩니다.
가정예배로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세요.

가정예배를 위한 팁!

- 1 가정예배 시간은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을 찾기 위해 매일 매일 시간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규정된 시간을 엄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가정예배가 지속적이며 꼭 필요한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 2 어느 한 곳(예를 들면 거실)을 지정하여 항상 청결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들고 매일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좋고 가정예배를 다정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방을 돌아가면서 드리는 것도 좋다.
- 3 가정예배 순서의 진행은 부모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윤번제(돌아가면서)로 가족 모두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담당자는 예배시간 10분 전에 가족 모두에게 시간을 알리고 장소를 정리한다. 예배시간의 통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줌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윤번제로 예배를 담당하기 어려우면 모든 가족이 예배의 한 부분씩 담당하는 방법도 좋다. 예를 들면 예배드리는 방 주인이 예배실 준비를 담당하고 예배시간을 통보한다.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인도할 수 있다.
- 4 가정예배의 순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 좋다. 대체로 15~20분 사이에 모든 순서를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 5 가정예배 특별순서 - 예배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여 간식도 준비하고 새로운 찬송을 배우며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가정예배 운영의 유의점

1. 가정예배가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2. 가정예배가 부모의 훈시나 명령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알아 듣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하며 자녀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나 순서를 마련한다.
4.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매일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요일을 정하여 드릴 수 있다.

- 자료출처: 기독교보넷중에서 편집
- 편집부 제공

신무경 목장을 찾다

대가족의 신무경 목장! 마치 한 그릇의 비빔밥 같다.
적당히 맵고 구수한 소고기 박은 고추장 같은 목자도 있는.... 어울림이 일품이다



시리얼은 꽤 괜찮은 아침 식사거리이다. 어떤 이에게는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세끼 주식이 될 때도 있다. “정작 혼자 있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아서---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맛없다고 투덜거리며 먹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스마트폰 뒤적이며 그러저럭 우유에 불은 알갱이를 훑훑 들이마시는, 외로운 이의 밥상을 지키는 필수 상비음식쯤. 이것과 대조되는 음식은 비빔밥이 아닐까?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색 나물을 씻고 데치고 무치고 볶을 것인가?



신무경 목장의 메뉴는 비빔밥이다. 어린 아기들을 둔 목원들 대신 고참 엄마인 부목자는 골고루 먹이고 싶은 얼굴들을 떠올리며 갖은 나물을 다듬어 색색이 담아낸다. 경상도식 소고기 박은 고추장이 또한 별미다. 목장의 아기가 열두 명, 한 가정에 두 명씩이다.

지난 주말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신앙생활로 한다면---. 마침 전주에 있었던 부흥회를 떠올리며 그 장로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한다. 결단의 때, 과감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과의 타협의 줄을 회개한다.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였느냐는 한 주간의 숙제에 남편들은 아멘으로 화답한다. 신앙으로 양보하고 복종하였느냐는 질문에 아내들은 가끔 ‘토’를 달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한 주 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늘 되새기며 숙제를 잘 해내려고 애썼던 모두의 노력이 엿보인다. 몇몇 목원은 생명의 말씀 성경학교 강의를 듣는 중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한다. 그 강의의 숙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사무엘 상의 큐티말씀을 나눈다. 여호와와 신이 임하면---. 높아진 사울 왕은 직장에서 교만했던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은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다. 원하지 않더라도 왕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주신 하나님의 자상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이 무엇인지 이야기는 깊어간다. 내 삶의 간증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을 구했던 것이 아닌가 회개가 쏟아진다.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는데--- 내 마음속에 높아진 나의 우상을 본 후 회개의 기도로 평안을 찾았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계획. 매주 돌아가며 나누는 간증 스토리. 교회 문턱을 밟았다고 머리카락을 다 잘린 여동생, 집안이 망한다고 교회 언저리도 가볼 수 없었던 그 세월을 건너 미국에 와서 만나게 된 임마누엘 하나님. 목자의 간증이다. 남편의 맹장 수술을 통해 집안의 제사장인 남편을 세워주고,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감싸주는 부부관계를 세삼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나는 부목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목장. 목자가 외로운 미국 생활 중 몇 차례 목장에 초대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듯이 그렇게 또 초대되어 섬김을 받고 예수님께 인도될 영혼들을 위해 합심 기도한다.

아이들은 그 사이에도 울며 웃으며 뒤척이며 뛰어다닌다. 각색 나물이 든 비빔밥을 먹고 난 끝이라 그럴까? 대가족의 이 목장은 한 그릇의 비빔밥 같다. 적당히 맵고 구수한 소고기 박은 고추장 같은 목자도 있는---. 어울림이 일품이다. 이제 한 방울의 참기름, 예수님이 부여하신다. - 편집부 이윤선

김에스더 목장을 다녀와서



하이웨이 280번을 타고 1시간 20분을 달려간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유일한 목장인 김에스더 목장이었다. 교통체증을 뚫고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서니 마치 서울을 연상케 하는 묘한 정겨움마저 느껴졌다.

손수 만든 도토리묵과 생선조림, 싱싱한 샐러드와 각종 나물 등.... 풍성한 식탁으로 눈과 입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자 먼저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풍경이 다소 생소했다. 목장 모임 때마다 헌금을 모아 '중도실명자 선교회'와 '한국섬 선교회' 두 곳을 섬기기 위해 정성껏 선교 헌금을 드린다고 한다. 이날 모임은 미국교회에 출석하지만, 목자님과 같은 미용실에서 만난 목원으로 목장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을 대신해 언제라도 가정을 오픈하며 북한에 두 번 다녀올 만큼 북한선교에 큰 비전을 가진 최소영 자매님 댁에서 여덟 명이 예배를 드렸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내려놓고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진지한 나눔의 모습이 은혜로웠다.

9년 전 목자 임직을 받고 처음 목장을 섬길 때는 목원

전체가 불교 신자들로만 구성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 목장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만나게 하신 사랑의 멤버들이다.

“목원 한분 한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체 역할과 협조를 참 잘하세요. 저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목자의 부족함을 목원들이 모두 채워 주고 계세요. 공간을 열어 베풀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하려고 애쓰는 목장이예요”라며 목원들을 향한 목자님의 자랑은 끊이질 않는다.

한국에 다녀오셔서 이날 모임에 맛있는 오징어를 챙겨오신 강용성 형제님, 감미에 집사님 부부는 목장의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역할과 목장의 살림을 알뜰살뜰 꾸며 주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목장을 섬기신다.

교회와 거리는 멀지만, 주일이나 집회 때 최영애, 최정무 집사님네 밴을 타고 목장식구들이 한 차로 교회를 오가는 동안 때론 부흥회도 하고 서로의 교제시간으로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 목장의 단합 비결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한다. 지난 해에는 목장 자체 이벤트로 찬송 다섯 곡 암송과 성경 암송대회를 열어 푸짐한 시상도 했는데 최정무집사님께서 찬송 5곡을 CD에 담아 주셔서 운전 중이나 일터에서 찬송 가사를 반복적으로 외워 부르니 저절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하고 주일 예배 때 가끔 암송한 곡이 나오면 너무 신이 나서 부른다고 한다.

박상돈, 박순희 집사님은 부목자님 부부로 목장의 중심에서 목원들과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많

은 수고를 하신다. 박순희 집사님의 인도로 목장에 출석한 지 3년이 지난 이미희 자매님은 365일 가게 문을 여는 일을 하셔서 아직 세례를 받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목장이 있는 금요일만큼은 어떤 약속도 뒤로하고 목장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모함이 크신 분이다. 이미희 자매님의 남편, 이성주 형제님은 목장의 전도대상자로 기도 중인데 그 댁에서 목장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이성주 형제님도 꼭 참석하시는 예비 목원이기도 하다.

2014년 교회의 중점방향이 예배로 정해지면서 목원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요즘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아침 일찍 가게에도 착해 문 열기 전 3~40분 정도 혼자 예배드리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기도시간을 만들려는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로 찬양 듣고 소리 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의 틀이 생긴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영의 양식부터 먹고 있어요.”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온종일 찬양을 들으니깐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또한, 많은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말씀 묵상으로 거룩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집에 돌아가 쉬고 싶지만,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목장예배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것일까? 취재진의 눈에 비친 이곳은 이미 ‘작은 임마누엘’ ‘작은 천국’ 같았다. 초대 교회의 사랑을 품은 김에스더 목장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제나 함께하길 소망한다.

- 편집부 김정신



성령의 파도를 타는 수요기도예배

2014년, 예배회복을 위한 공예배 현장인 수요기도예배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기로 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2011년 2월 2일, 수요기도예배가 본당에서 다시 시작되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다. 1998년까지만 해도 교독문을 읽는 전통예배를 드렸으나 손원배목사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던 찬양 예배가 1999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때 처음 시작된 찬양팀이 바로 현재의 수요기도예배 찬양팀이다. 하나님께서 Homestead 성전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시어 처음 수요예배 참석인원 40명이 1년 사이 3~4백여 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특히, 이 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여 폭발적인 찬양의 열기가 본당을 가득 메운 적도 있었고 수요찬양예배를 통해 청년 부흥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때 목장사역이 시작되면서 수요목자모임과 겹쳐 수요찬양예배를 드리지 못하는(1년 정도) 아픔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수요찬양팀을 중심으로 소예배실에서 5년간 계

속 드러졌다. 찬양팀이 회중보다 많을 때도 있었고 명절 때는 찬양팀끼리만 예배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사모하여 매주 참석하시는 타고인 한 분 때문에 수요찬양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도리어 감사하게 된다고 찬양팀원들은 입을 모아 고백한다. 찬양팀원 중에는 미취학의 어린 세 자녀를 두신 분, 셋째를 임신 중이지만 막달까지 섬기시겠다는 분,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분, 대학생 신분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 있다. 십 여년 동안 한결같이 찬양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명 하나로 기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며 강단에 서기까지 주일 오후부터 일주일 내내 기도와 묵상으로 수요기도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반주자는 악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연주하고 싱어들은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굴에 기쁨이 저절로 뿜어져 나와 영으로 찬양하게 된단다.

찬양팀 드러머인 박명철 형제의 고백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 수요기도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느껴집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힘들다가도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드럼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주님이 새 힘 주심을 느낍니다.”

기도의 사람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다. 요즘 많은 성도가 수요기도예배에 참석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비전 청년들이 점차 증가함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경아 자매는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수요예배는 주님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울고 싶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수요예배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통해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

납니다.” “잘 왔다. 내 딸아!”

수요기도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때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직 예배의 빈자리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기도는 영적인 일들을 움직여 가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 4:6)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요찬양팀과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우리들의 가슴 속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보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의 심령에도 기도의 기지개를 활짝 펴보는 것은 어떨까? 수요기도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참된 예배의 회복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거대한 파도를 함께 타게 되기를 간구한다. - 편집부 김정신



We Are One Church! 우리 안의 ‘인도교회’ 이야기



포 이 김선달, 대동강물을 팔았다. 최고의 세일즈맨, 구두를 들고 아프리카에 떨어지면 발 벗은 이가 많아 쾌재를 부를 것이다. 실리콘 밸리, 풍요와 문명의 이기, 최고의 인본주의적 땅에서 쾌재를 부르는 이가 있다. 예수님으로 옷 입힐 수많은 영혼의 땅. ‘The Blessing’ 교회 Rayan 목사님, 우리와 이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인도 교회 목사님이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 드린 그곳에서 매 주일 오후 4시 반에 예배드리는 교회이다. 목사님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인도에서 유학 와 대학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사모님은 인도 남부 출신으로 외할아버지가 목회자이기에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나 전문인의 꿈을 접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 인도인뿐만 아니라 아프로-아메리칸 목회자와 성도를 포함, All Nations Church의 비전을 품었다.

작지만 큰 교회, ‘The Blessing’ 교회에서 놀란 두 가지는 미션 프로젝트와 중보기도이다. 미션 프로젝트는 2006년 이래 8년째 진행되어 온 것으로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끼치자는 프로젝트이다. 교회 헌금의 십일조를 떼어 다른 교회나 기



관을 돕는데 고아들을 돕거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즈음에 공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성경책 나눠주기 등이 대표적 사역이다. 중보기도는 컨퍼런스 콜을 적극 활용한다. 요일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이 교회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 미 전역 15개 주 중보기도자와 캐나다의 두 장로님이 수화기를 들고 그들의 모국어와 영어로 기도 릴레이를 한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금식기도회를 열어 교회의 필요와 전도에 대해 기도한다. 2014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비전 50이다. 50명의 성도를 채워주시길. 곧 5백으로 바꿀 그들의 믿음의 기도이다.

실리콘밸리의 인도인 가운데는 힌두교인도 있다. 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개인적인 아픔이나 그들의 가족사에 직접 개입하여 사랑을 전하고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길 간구하는 것이다. 인도인 엔지니어들이 많기에 곧 ‘직장에서의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몇 년 전 데이빗 조 목사님이 인도 단기선교 길에 축복기도를 받은 적이 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인도 교회가 서는. 곧 이 기도가 현실이 되어 ‘The Blessing’ 교회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다. 씨앗을 임마누엘 교회에 뿌렸으니 이제 추수의 때를 향해 기도한다고 했다. 믿어주고 씨앗을 뿌리게 한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회는 주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가진다. 저 머나먼, 평생에 이름도 들었을까 말까 한 열방을 위해 손잡고 그들의 빈곤이 물러가고 영적 눈이 뜨이기를 눈물 흘리며 짝기도를 한다. 미국의 부패한 영적 현실을 회개하며 중보한다. 교회 로고는 세계를 품은 독수리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을 적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심지어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John Stott).”

교회는 하나다. 이제 온 교회가 손을 잡고 먼 땅의 열방과 우리 이웃, 바로 백야드의 열방을 찾아 일어설 때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함께 나서자고. We Are One Church

-편집부 이윤선



“가정교회 개척”

나흘째 되는날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아침 일찍 선교사역지로 떠났습니다. 사람과 차와 소들과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니 조용하고 한가로운 시골 풍경이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두 시간의 거리를 달려 먼저 한 사역자의 집에 도착하니 작은 남자아이가 Praise the Lord 하면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한 후에, 두 팀으로 나누어 “Patel Anjana” 종족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로서 목화를 재배하고 집에서는 베틀로 천을 짜는 일을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팀이 처음으로 도착한 집은 비교적 도시의 집보다는 크고, 넓은 대청마루가 있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사람 집을 예비해 두셨고, 그 평안의 사람 집에 노인 남자분들, 젊은이들, 또 여자분들, 한 15명정도가 모였으며, 집주인이신 분이 앞에 앉으시고, 그 옆에 그분의 아들되시는 분이 앉고, 그외의 분들이 그 뒤로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눈 후에 서집사님이 Evange Cube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지바 목사님께서 힌두어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기에, 우리 팀원들은 복음이 제시되는 동안,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ould you like to trust Jesus right now and be saved? Please raise your hand(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할 때 주저함 없이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화답하고,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시고, 영접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 하게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조다윗 목사님과 지바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단계를 하고, 그 집주인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젊은이를 가정교회 리더자로 세우고, 그 곳에 가정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믿지 않던 가정은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게 하고,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며, 이 헌금은 그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는 다른 사역지를 향해 그 곳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제 믿기로 작정한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들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이렇게 우리팀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평안의 사람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들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동안 우리가 가는 곳에 방해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경에서 말씀하심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며, 병든 자가 회복되고, 악한 영에 붙잡힌 자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듣던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등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곳에 역사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열방에 구원이 이르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구자랏 주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 세 종족, 칼파(Khalpa)족, 팟엘 안자나(Patel Anjana)족, 로다(Lodha)족은 우리 교회에서 입양한 종족들입니다. 특히 구자랏 주는 힌두교가 강하며 과격주의자들이 많은 곳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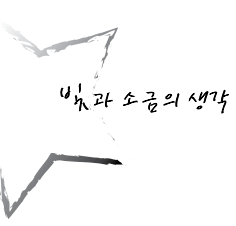
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이 세종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번 사역기간 동안 12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되었고, 지난 1년간 3개의 미전도 종족 안에 406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되었으며, 48명의 개척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또 이 구자랏 주에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 하겠다는 젊은 목회자(지바 목사님)를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인도에는 600,000만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400,000만개 마을에는 아직도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인도는 12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기독교는 0.5%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개척할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입양한 종족에 개척된 가정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가정교회들이 개척되도록, *또 개척교회 사역자들이 훈련 받고 영적으로 성숙되도록, 사역자들이 어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굳건히 서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 되도록....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 지바목사님과 지역사역자들의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도땅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 이성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새벽기도회를 위한 스펠전의 찬송시'



거룩한 찬송이 아침 공기를
부드럽게 깨우는구나
안개가 덮인 세상이 아직 어둡한테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네.

꽃들이 이슬에 젖는 동안
영혼의 이슬이 내려오누나.
태양이 여명을 드리우기 전에
오, 주님. 성령을 보내주소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집에 나와
오, 주님. 저희를 죄에서 지켜줄
주님의 방패를 구하옵니다.

저희가 탄 배가 닻을 올리고
하루의 세파를 헤쳐 나가기 전에
오, 주님. 하늘나라의 세찬 바람을 보내셔서
신속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전에
고적한 산자락에서
슬픔의 사람이 울며 부르짖다가
능력을 받고 새롭게 일어섰네

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무력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세주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려네.

- 찰스 해돈 스펠전
(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
- 영국의 목사, 부흥사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달려가 복된 소식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크리스천이 되어도 천사와 같이 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 그들에게 나아가 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계략들이 교회에, 설교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다들 복음에 대한 민감함이 무디어진 것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지속한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안일함과 평안함, 형통함만 구하고 만족해 할까?

물속에 빠져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린 그저 유람선에서 풍악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이가 말했듯이 교회는 '생명선이요, 구조선' 이어야 한다.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급히 출동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건져 와야 한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아무리 믿음직하고 능력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뛰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다면 그는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 낼 수 있다.

- 광명옥 전도사(나는 전한다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와
예배와 찬양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한 영혼을 위해 수고와 사랑을 부으며 예배 회복에 힘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 주신 초대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처럼
복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며
부활의 신앙이 바로 설 때 북한의 악한 세력들도 결국 힘을 잃고 말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부활 신앙으로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산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교회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했나이다.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며
주께서 주신 세상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학업에 증거를 주시며
달란트를 발견하여 전문성 있는 자녀들이 되며 청소년들이 되게
축복하여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원하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세워 주신 많은 기관과 모든 직분자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봉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상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또한 삶과 생각이 다른 세상 유혹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위기에 부딪혀도
기도와 예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고 다 함께 힘을 모아 믿음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김명옥



나를 세우신 말씀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하면서’

일 마 전 신앙위원회 편집부를 섬기는 집사님으로부터 ‘임마누엘 부활절호’의 원고를 부탁받고, 순간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모든 것은 용기다. 특히 네가 잘못된 것을 아뢰는 용기를 가져라.”

올해로 시무 장로직을 마무리하는데 특히 담임목사님께서 올해 목회 중점 방향을 ‘예배’로 정하셨다.

‘예배’ 이 단어 하나에 나의 신앙생활의 전모가 집약되는 중압감을 갖게 되었다.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 중 언제 한번 하나님께 진정 한 바른 예배를 드렸었나 돌이켜 본다.

주님 몸 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 이전에 내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성도(Saint)일 수 있었는가?

Four Fold Relationship(4 영리)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과법칙을 도외시할 때가 너무 많았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일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덕목이요,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 교회는 사역위원회와 가정교회가 두 축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성장해 왔다.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이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바람이 있다면, 독수리가 양 날개로 더 높이 비상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주신 사명에 나서야 하겠다. 부흥회, 찬양대회 등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감동은 감동으로 끝난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의 생수를 잘 간수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 새벽기도, 기도, QT, 성경공부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혹은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하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 28:20). 병든 신앙인보다는 고문관(顧問官)행동이 굼뜨거나 어리숙한 사람)신앙인은 하나님이 쓸데가 있다. 모세,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사도 바울 등 인물들을 볼 때 철저히 남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산 분들이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참으시는 주님(사 53:7), 십자가를 참으사 (히 12:2)

주님은 어제도 지금도 인내하시며, 우리가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회귀하길 원하신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허락하신 남은 삶을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서원해 본다.

- 예배위원회 이동우

나를 세우신 말씀

'하나님의 형상'



우리 부부가 모처럼 탄성을 지르며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놀래거나 꿈 같은 일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잖은 세월을 살며 여러사단을 겪고 살아 온 우리에게 감격의 샘이 조금은 말라버린 탓인지 무슨 일을 보아도 탄성을 토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탄성을 지르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놀라는 때는 오늘이 며칠인지 따지며 한 주간, 한달 그리고 일년을 문득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시간이 정말 바람처럼 빨리 달아난 것을 실감하고 놀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는 말이 사실인 듯, 요즘은 탄성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주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지난 달은, 그리고 엄청난 지난 세월에는? 우리는 가슴을 쓸어 내리며 지난 세월에서 의미있는 그래서 재미있던 삶의 토막을 기억하려고 애쓸 때가 있고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다시는 허망이라는 괴물의 공격을 피할까 고민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뿐이고 시간은 짧을 뿐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젊은 날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일에 몰두하며 열을 내다가 뒤 늦게 나이가 들어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반문하고 후회도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내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방향에서 구했고 세상이라는 고향에서 구해주었던 말씀을 여기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7-28)"

성경은 생명의 기원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장 믿음만한 책이고 증명입니다. 위에 인용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슨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낸 지를 직접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두말하지 말고,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나 의문이 있을 때는 인간을 지으신 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많습니다. 어려움이 납처럼 몸을 내리누를 때나, 유혹이 불쑥 찾아왔을 때나, 혹독한 실패가 인생을 망가뜨릴 때에 나는 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 났습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보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경우에 처하든 잊지 말아야 하는 그분의 뜻이고 인생의 보편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면 부드러운 마음은 건조해지고 딱딱하게 변하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이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나 펄떡거리는 생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어떤 능력과 지혜를 선천적으로 갖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인지를 알려 주며 우리가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라도 회복하면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나 실패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 나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책 첫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 읽었던 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 앞에 서면 온 몸에 전율을 느끼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메마른 영혼에 영성이 가득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언제나 풍성한 영성을 깨어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시길 감히 권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게 하는 영성이 충만한 샘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김중수

'오클랜드 국제 항구'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소식 전합니다.

올해 2013 성탄절과 연말에도 오클랜드 국제선원선교센터에서는 약 3천여 점 선물세트(겨울 잠바, 생활용품)를 100여 척의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선물 가운데는 특별히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해 준 따뜻한 겨울 재킷 130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제한되었기에 특별히 올해 최악의 태풍(하이엔)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재난을 가져온 필리핀의 타클라반지역에 거주하는 선원들과 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가난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중략) 선원선교를 위한 사랑의 성탄 선물 준비에 동참하고 기도해주신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클랜드 국제항구의 선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모든 선원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배 안에서 근무하며, 자신들의 고국에 선교사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 모든 선박마다 선박 교회가 설립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원들이 배 안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와 성경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인들로서 교제하며, 일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 선원선교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선박 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 교회와 교회의 목장에서 한 선박씩 입양해서 그 배 안의 선원들(모슬렘, 불교, 힌두교, 무신론)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그 선원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클랜드 국제선원선교센터(International Maritime Center)
- 유영준 선교사 올림



'나바호 마을에서'

우 리 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사랑의 장터'의 의류나 생필품 중 도네이션된 지 한 달 이상 된 물품을 수거,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남종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원이 나바호 선교지 초기 활동에 큰 힘이 된다는 감사와 선교지 소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생략)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잘 도와주셔서 여러 구제품과 식량들을 이들 가정에도 전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에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으면 귀 교회 선교부에 기증해 주셔서 이들 원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미국 원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라는 마음으로 이런 작은 정성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이남종 선교사 드림

'필리핀에서'

지 난 12월25일, 주일 설교 실천 숙제로 '성탄을 맞아 감사의 편지쓰기'와 '자녀와 함께하는 감사의 선물 보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이 지정 현금 등으로 참여해주셨고, 그 현금의 일부를 손원배 목사님의 추천으로 태풍피해를 입어 큰 어려움이 있었던 필리핀의 박희수, 강정숙 선교사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생략)--- 지난해에 필리핀 태풍 피해 원주민 돕기 현금을 보내 주셔서 이곳에서 정말 감사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 보고 드립니다. 어렵게 사는 원주민들에게 조금이지만 기쁨과 행복감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서 저희 부부도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목사님과 온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네그로스섬 바콜로드에서
- 박희수, 강정숙 선교사 드림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을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의 미소가 되는 이 시대의 작은 착한 일을 소개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클릭이 그 얼굴 에 미소를---

smile.amazon.com에서 "Eligible for AmazonSmile donation"이라 명시된 상품을 사시면 구매액의 0.5%가 당신이 지정한 비영리 자선단체에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The AmazonSmile Foundation will donate 0.5% of the purchase price from your eligible AmazonSmile purchases.
기존의 아마존 어카운트에서 smile.amazon.com을 입력하여 charity 설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찾는 대표적 자선단체

- American Red Cross (미 적십자사)
- The Nature Conservancy(세계 생태 환경 보호 단체)
- Code.org(컴맹퇴치를 위한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단체)
-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아동암과 질병 퇴치 연구 병원)
- charity: water(개발도상국에 맑고 안전한 물 자원 제공 단체)

그외 원하시는 종교/선교 단체나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YOUNG VOICES OF EMMANUEL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우리가 아는 이 시대의 등경의 불빛이나 그 맛이 아니다. 실리콘밸리 피플이 솔깃할 만능 스마트폰이나 유기농 푸드가 아닌, 과연 이 시대 빛과 소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젊은 목소리에게 듣는다.

Staying Tasty and Shining Brightly: Living as Salt and Light in the Bay Area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Jesus said to the crowd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lthough these declarations hardly qualify as compliments today, they would have been welcome words to the Jews who had come to listen to this exciting new teacher and miracle worker, this Jesus of Nazareth. For the people of Jesus’ day, salt was a precious commodity, useful not only for its ability to give flavor to a meal but also for its power as a preservative. And for a culture that had not yet discovered the convenience of electrical lighting, once the sun had set, the glowing light of a candle was truly essential to life. When Jesus looked into the eyes of the people who had come to learn from Him that day, He told them that they were precious, like salt, and cherished, like light.

But Jesus wasn’t just complimenting His hearers; these compliments came with callings. Just as salt makes food tasty, so the followers of Jesus were to offer to the people of this world a more appetizing way to live, to invite them to feast their souls on the delicious glory of God. And just as salt preserves food against decay, so the people of God were to do all they could to stave off the corrupting effects of sin and evil. Just as light brings hope to those in darkness, so Jesus’ disciples were to shine the hope of God’s promises into the lives of those around them. And just as light guides our steps in safety, so the people who heard Jesus’ words were to share them as trustworthy truths to guide people to God.

Twenty centuries later and nearly 7,500 miles away, we have the honor and privilege of reading Jesus’ words to the crowds for ourselves in Matthew 5:13-16. The Spirit of God lays upon us the same calling they received that day. As present-day followers of Jesus Christ, we, too, are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We are also precious and cherished by God – and we also have an important calling to fulfill.

Not much has changed in the two millennia since Jesus first gave the call: we still live in a world filled with tasteless, godless living; our world is still decaying under the oppression of Satan; the people of this world still bury themselves in the same dead hopes of profit, power, and prestige; all of humankind still walks about in darkness, groping their way through Sin.

And so our calling as the people of God has not changed, either: as the salt of the earth, Jesus calls us to reveal the soul-satisfying goodness of God as we fight against the corruption of Sin in our society; as the light of the world, Jesus calls us to shine the hope of the Gospel into the dark delusion of worldliness.

We are called to be different from the people around us. We are called to have different behaviors arising from different values, to have different dreams and different goals, to be different in every way because we serve and love a different Lord and Savior.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Jesus said,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 Bay Area residents, that means living for God’s Kingdom, not living for our careers; that means measuring success according to Christlikeness, not according to grades and paychecks; that means depending on God for all of our needs, not anxiously depending on our strength and wisdom; that means carrying our crosses in selfless love for others, not living for the immigrant dream of comfort in the present.

Jesus’ warm words were also filled with warning.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Jesus said,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people’s feet.” The salt of Jesus’ day, as precious as it was, was not as pure as what our industrial factories can produce today – it could actually lose its saltiness, rendering it unusable and worthless. Jesus went o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Jesus implied that, though it would be foolish to do so, it is indeed possible to hide the light of a lamp. Jesus told the people who listened to Him that they were salt and light – but He also warned that they could lose their saltiness if they did not guard their purity, and their lights could go out if they succumbed to the darkness around them.

The Spirit gives us the same warning today. We have a high calling – we are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 but it is a calling we could lose, a calling we could fail to keep. If we do not guard our spiritual purity, and if we succumb to the darkness of the world around us, we will be as worthless as salt that has lost its saltiness and a lamp hidden under a cover. If we give in to the pressure to make school and work more important than spending time with God in the purity of devotion, we will lose our saltiness. If we do not fix our eyes on the hope of the Gospel and instead start dreaming of success as this world defines it, our lights will be put out. If we do not fill our hearts with the saltiness of God’s Word and the blazing fire of the Holy Spirit, we will become worthless. But if we fill our hearts with Jesus’ words and depend upon His Spirit, we will stay tasty, brothers and sisters, and shine brightly!

- Pastor Eugene Kwon Pneuma Fellowship (임마누엘 NLCF College Ministry)



‘꽃꽃이로 예배를 돕는 분들’

지난 20여 년이 넘도록 매주 꽃꽃이로 예배를 돕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꽃 그 자체가 아름답지만, 사랑하는 주의 딸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공교히 꽃을 모아서 올려 드릴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꽃꽃이 팀을 소개합니다.

초 창기 교회가 자그마할 때부터 이귀연 권사님이 혼자서 매주 강단 꽃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후 한분 한분 부원들이 늘어 현재는 10명(서옥순, 이정미, 안진순, 박현희, 장미자, 박현주, 백영희, 손경아, 박은복, 김희성)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간 오랫동안 서옥순 권사님이 팀장으로 섬겨 주셨고 올해부터 이정미 집사님이 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꽃꽃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격려하고, 또 꽃꽃이의 경험을 공유하기에 더욱 은혜가 됩니다. 이분들이 하신 꽃꽃이를 보면 어쩌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지요. 어느 전문가들이 하신 것 못지 않습니다. 한분 한분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솜씨로 꽃을 꽃으시기에 주일 강단의 꽃을 보면 누가 하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단 꽃을 맡으신 분은 한 주간 내내 어떤 색상의 꽃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지 먼저 기도하시며 구상하십니다. 그리고 꽃 도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과 소품을 최고의 것으로 구입하시지요.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자르는 일, 그리고 그 꽃들을 꽃을 자리에 꽃아가는 일이 이분들께는 거룩한 예배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절기 때에는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분주하십니다. 부활절에는 성전 안을 백합 향으로 가득 채우고, 추

수감사절 때는 각종 열매와 채소들로, 성탄절에는 포인세티아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예배당 안팎을 장식하십니다. 때마다 이 땅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단의 꽃으로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 꽃꽃이 팀에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날 교회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슴에 달아 드릴 코사지 꽃을 만드는 일입니다. 카네이션 3백여 송이를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손수 예쁘게 만들고, 다음날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달아 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 해마다 수고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참 많은 분이 꽃꽃이로 예배를 섬기셨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신 고 고혜령 집사님이십니다. 소천하시기 몇 주 전 자신의 봉사 순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몸에 주삿바늘과 주머니를 끼운 채로 온 힘을 다해 드리셨습니다. 당시 긴 암 투병으로 인해 너무 쇠약해진 몸이셨지만 최선을 다해 꽃을 꽃으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혜령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임마누엘 꽃꽃이 팀원들을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성실함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더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20년 꽃꽃이를 보아 온 교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

‘시온의 () 아침’

일 마 전 편집부 집사님께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 말로만 들어 봤던 ‘원고청탁’이 었습니. “찬양대실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은혜들,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이야기, 잔잔한 감동 등을 그 옛날 사랑방 이야기처럼 정겹게 스케치하듯 소개해 주시면 됩니.” 아 물론이쥬, 맡겨만 주십소라고 얼떨결에 대답한 다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흠... 사랑방 은 본 적도 없고, 찬양대실 풍경은 잔잔하다기보다는 떠들썩한 편이고, 도대체 정겹게 쓴다 는 건 뭔지, 스케치는 무슨 시금치과의 나물인가?’ 하는 상념들이 머리를 꼭 채웁니. 한참 뒤 맘을 다잡고 쓰려고 했더니 이런! 제목부터 막히네. 그래서 일단 손 목사님 흉내로 괄 호를 치고 지나갑니. 안 그러면 제목 생각만 하다가 끝날 듯해서.

제목이야 어찌 되었든, 주일 1부 예배 때 찬양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이야기를 하 려고 합니. 먹을 거나 상품이 걸리면 좀 처사하게 변하는, 그런 알고 싶지 않은 면 말고 겸손함이나 화기애애함 등 알려도 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려고요.

시온 찬양대의 예배 준비는

보통 한 달 전에 시작됩니다. 겁나게(?) 어려웠던 찬양은 열 달 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겸손하신 시온 찬양대원들께서는 다들 엄청난 음악성을 가지셨지만 너무하다 싶을 만큼 꼭꼭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한 달간 연습을 했어도 막상 주일 아침 이면 이게 웬 침 듣는 노랜가? 하는 눈빛을 서로 나눕니. 하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예배를 드리겠다는 바람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올라갑니. 그리고 정말 은혜로, 예배 때는 연습 때보다 갑자기 잘 하게 되는 기적을 늘 경험합니. 그래서 ‘혹시 우리가 무대체질인가?’ 하는 당치도 않은 생각도 가끔 하쥬.

예배 때 시온 찬양대의 굳은 얼굴을 보신 분들은 도저히 상상 못하시겠지만, 연습 때 시온찬양대는 늘 화기애애, 웃음 이 넘칩니. 농담전문요원들도 계시고요, 말려야 할 지휘자님 은 오히려 한술 더 뜨시쥬. 가끔 농담이 썰렁할 때도 매너있는 시온찬양대는 옆 사람을 때려가며 웃어주는 리액션을 아끼지 않습니. 물론 예배 때도 연습 때처럼 기쁜 표정으로 찬양하 고 싶긴 한데... 아무튼 표정에서도 찬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따뜻하고 훈훈한 미소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 성대원들 먼저요. 남성대원들은 먼 훗날 이쁘게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과 이해로 기다려주셔야 할 듯.

시온의 아침은

찬양연습과 간식, 커피를 받는 분들, 서로 안부를 묻는 분들로 시끌시끌하지만 그중에서도 정겨운 모습은 가운 입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가운 단추가 등 뒤에 있어서 혼자서는 입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단추를 잡아 줘야 하거든요. 물론 여러 해에 걸쳐 혼자 입을 기술들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입혀주는 것이쥬. 여러 명이 앞으로 나란히 서서 서로 가운을 입혀주는 모습, 참 사랑방스럽쥬? 괜히 혼자 단추 잠그려고 등 뒤로 팔을 뻗었다가 담이라도 걸리면 후회막심이기도 하구요. 찬양대실 뒤편 책꽂이에는 각 대원님들 이름이 붙어있는 악보 가 꽃혀 있습니다. 주일 아침 그 책꽂이 앞은 자기 악보를 찾는 대원님들로 복잡한데, 이상하쥬? 자기 악보는 잘 안 보이는

데 남의 악보는 금방금방 찾아잡니. 아마 남의 떡이 더 커 보 이듯 남의 이름도 더 커 보이나 봅니. 그래서 악보도 서로 찾아 줘야 할 때가 많습니. 이런 서로에 대한 지나친 의존증... 안 고치고 싶습니. 한참 찾아도 결국 못 찾고 악보가 없어졌 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분이 악보를 대신 자 리로 가져다 놓으신 경우쥬. 이런 백 평짜리 오지랖도... 사랑 �럽습니.

무엇보다 시온의 아침을 사랑 가득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풍경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어서 일 것입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미리 즐길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쥬. 가끔 천국의 모습을 상상합니. 하나님이 좋 아하시던 다윗의 장막. 그곳에서 조를 만들어 찬양하던 레위 인들. 만약 천국에도 찬양하는 직분이 있다면, 그리고 조를 만 들어 찬양한다면, 시온 찬양대가 같은 조에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봅니.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답을 넣어야겠쥬. 아마 ‘사랑 가득한’, ‘웃음 가득한’, ‘천국 같은’이 다 답이 될 것 같습니. 식상한 답 이라고요? 맞습니. 빠른 답입니. 하지만 생각해보세. 만 약 시온의 ‘괴성과 광기가 가득한’ 아침이 답이라고 하면 바로 편집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시온의 괴성과 ‘...’ 가 아닌, 사랑과 웃음 넘치는 아침 풍경 스케치였습니.

-1부 시온 찬양대 우병삼

시온찬양대는 늘 화기애애, 웃음이 넘칩니.





레몬향 그윽한 호산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각 파트별 색깔 있는 음색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곱게 어우러져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심령들로 거듭남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주일 아침은 참 바쁘답니다.

지에서부터 서둘러 준비해도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 찬양대실까지 뛰어야만 턱걸이하듯 8시 45분 찬양연습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예쁘게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 다. 그리고 도착한 찬양대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먼저 오셔서 귀한 섬김의 손길로 정성껏 준비한 뜨거운 레몬차와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노라면, 집에서부터의 모든 분주함이 일순간 잠재워지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어느새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앞에 서게 됩니다. 마~메~미~모~무~

찬양연습에 앞서 매주 발성연습을 빼놓지 않는데요, 발성연습부터 에너지 넘치는 강소연 지휘자님을 만납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절도있는 지휘를 보노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경지에 절로 이릅니다. 또한, 건반의 요정 정혜란 집사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각 파트별 색깔 있는 음색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곱게 어우러져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심령들로 거듭남을 느낍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직전,

찬양대원 전원이 합심 기도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마다 뜨겁게 임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이어 목사님의 축복기도까지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예배에 쓰임받기만을 열망하는 간절함으로 충만해 집니다. 지난번 찬양대 세미나를 통해서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던 레위지파들의 반열에 우리가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 즐거운 점심시간, 그때부터 테너, 베이스 형제님들의 화려한 활약이 시작됩니다. 소천 교실에서 점심 배식을 해주시는 형제님들,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주일마다 60명 회원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악보를 복사해 주시는 형제님, 또한 우리의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찬양 연습곡들을 음악파일로 만들어와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형제님, 그리고 주일 오후 연습까지 모두 끝난 다음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는 형제님.... 정말 우리 호산나의 기둥 같은 형제님들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특심으로 사랑하는 대원들의 충성과 열정들이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호산나를 우뚝 세워놓게 한 원동력을 자랑합니다. 2014년, 우리 임마누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예배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즐겁게 사용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히 부여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 2부 호산나 찬양대 주은혜





...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 (마 22:37)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오후였다. 에녹 예배 후 점심을 먹으며 “이름이 ‘순경’이어서 늘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질서 유지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어 주변이 평화롭다”며 늘 웃으시는 이순경 권사님 인터뷰를 했다.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부터 하셨고 평안도 선천에서 교회를 다니던 중 이웃 교회를 섬기던 이득수 장로님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때가 17세, 남편은 18세였는데 일본강점기에 징용을 피하고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결혼을 시키기로 어른들이 약속하셨는데 혼인 신고를 해야 모든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어서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하고 나니 다니던 중학교를 더는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서 남편은 개성 사범학교에 가게 되었다. 고향에서 세 차례 시어머니께서 돈을 싸다 주셨고 나머지는 권사님께서 샀 바느질을 해 학비를 마련, 졸업하게 되었다. 첫 발령은 피난 와서 생활이 외롭자 시누이 남편이 목회하는 경기도 광주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다. 다음에는 가평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다. 막내를 임신했을 당시이므로 37살쯤 된 것 같다. 교회를 개척했다. 시골이어서 절도 많았고 무당들도 있어서 교회 개척이 쉽지 않았다. 나무를 하러 가면 “무슨 선생 아내가 나무를 해!” 하고 놀리기도 하고 썩덕거렸다. 교회 중을 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붙들려 가기도 했다.



교회 식구를 늘려야 했다. 오토바이에 태워 근처 주둔한 군인들을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밥을 먹여서 보내곤 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니 선생을 구해 학생을 가르치려고 친정조카, 시누이 딸을 데려다 성경을 가르치고 밥을 먹여 보냈다. 총각 전도사님께 밥을 조금 해 드릴 때면 밥그릇 밑에 쌀밥을 놓고 위에 보리밥 얹고, 남편 밥에는 먼저 보리밥을 담고 그 위에 쌀밥을 얹어 퍼 드리면 전도사님은 “집사님, 저 이 밥 못 먹겠어요.” 하시곤 했다. 개척 교회 당시는 내가 먹을 양식으로 남은 해 주고 끼니를 거

르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장 기뻐던 때는 남편이 교장 교육받을 당시 개근 10년 상을 받았을 때와 교육감상을 받았을 때이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남편이 상을 받았네.”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 지금 50세가 된 딸을 낳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학교 선생을 하는 남편에게 학부형과 동료들이 코 잡고 귀 잡아서 술을 먹이곤 했다. 양심에 가책을 받은 남편은 교회 지휘자였는데 교회도 못 가곤 했다. ‘나에게 매를 주셔서라도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몇 번 안 했는데 하나님은 쉽게 기도를 들어 주셨다. 내 어깨를 지나 엉덩이에 총알이 박히게 된 것이다. 병원에 가서 총알을 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호.” 의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어서 알아듣지 못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 총을 맞게 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서 술을 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얻었다. 딸 셋을 낳고 아들을 주셨다. 세월이 흘러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너는 신학교 가야 한다.” 했더니 “가축병원 하려고 하는데요.” 하더니만 장로교 신학 대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회하고 있다. 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장로님들께서 칭찬하며 미국에 계신 노부모님을 만나러 휴가 다녀오라고 했다는 소식에 감사하다. 아버지를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도 만져 드리고 사랑을 보이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73세에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본 교회에 가서 주일을 지켰다. 처음에는 흠뻑들로, 다음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마지막으로 벽돌로 세 번 교회를 지었다. 교회를 지으면서 빛이 조금 있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발을 팔아 모두 갖고 왔다. 평생을 돌아보면 인근 부대에서 교회에 군인들을 보내주고 임신을 해 배가 불러서도 벽돌을 나르며 교회를 짓던 때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교회를 개척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는 권사님과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적은 헌금이지만 개척한 교회와 아들 교회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 헌금할 때가 제일 좋으신데! “할 것이 있으면 더 할 텐데...”

전심 다해 100퍼센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 편집부 장은영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저는 화요 여성예배 찬양팀 인도자 정주영입니다. 2014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사역방향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 요소중 하나인 찬양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깝고, 깊게 만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터 음악과 노래를 좋아했던 저는 초등학교 때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의 의사 결정에 따라 종종 TV와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많은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며 노래 잘하는 아이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름의 뜻이 무엇이나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시 현대 (고) 정주영 회장과 이름이 같아 늘 이름 때문에 웃는 일은 많았지만 이름의 뜻을 물어보시는 분은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제 한자 뜻을 들으시고는 앞으로 너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며 제 이름 '주영'을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어린아이였던 제 마음에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어렵קות도 짐작치 못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대학생 선교 훈련단체인 CCC(Campus Crusade for Christ)에서 전도와 제자의 삶을 훈련받으며, 찬양팀원으로도 훈련받는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노래 잘하는 아이였던 저는 어린시절 이후 음악적으로 크게 성장치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복음으로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4년간의 대학생 훈련 후 졸업하여 CCC 전임간사로 지원해 훈련받는 동안 180명 목표로 캠퍼스 전도훈련과정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그분을 향한 가치와는 달라 답답함과 어려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높은 소리로 부르게 하신 찬양이 바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을 통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그늘속에 살며 주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비록 복음을 전파했을 때 무관심하고 냉랭한 반응을 보인 그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 보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은 진동하였으며 그 어떤 때보다 나의 사랑을 진하게 고백하고 있었음을 이 찬양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절). 복음 전할 때의 외롭고 외면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으로 그 분이 나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사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찬양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훈련과 숙제나 점검속에 영적인 분량을 억지 속에 채워 나갔던 메마름 가운데에서는 그런 메마른 마음이 성령으로 젖기 위해서는 기록하여야 한다는 성령의 부르심, 또한 주님을 더욱 찾으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2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의 사랑을 나의 구주, 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3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현재 있는 곳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과 밀실에서의 대화를 즐기며(기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며, 계속 그러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를 중용할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감히 도전해 봅니다. - 정주영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Just let me say)

Geoff Bullock

1.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 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 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2.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 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3.온 맘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 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 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임마누엘 레시피

피쉬타코(fish taco)



사랑으로 만드는 피쉬타코(fish taco)!
아이들 혹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색다른 별미를....

제게는 fish taco를 매우 좋아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포틀랜드에 사는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바다 낚시가서 Lingcod를 잡았는데 피쉬타코(fish taco)를 어떻게 만드나요?”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더니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태로 했지만 제 아들처럼 낚시를 잘하는 남편을 두신 분
이라면 싱싱한 cod fish로 만들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피쉬타코(fish taco)
를 만들어 아이들 혹은 목장 식구들과 색다른 별미를 드셔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만드는 법:

1. 동태 포른 것 10조각 (얼었으면 냉장고 온도에 녹여 물기를 뺀 후) 밀가루 1 Cup, 빵가루 2 Cup, 계란 3개를 준비한다. 페이퍼 타월에 꼭꼭 눌러 물기를 없앤 다음 밀가루를 묻혀서 풀어놓은 계란에 담가 빵가루를 묻히는데 돈까스 절차와 같다. 이렇게 준비된 생선은 기름 375도에서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튀겨 낸다.
2. 소스 준비는 이렇게: 양파 1/2개, 토마토 1/2개, 할로피노 고추 2개를 준비한다(이때 고추씨를 빼면 덜 맵고 씨째 같면 아주 매운 소스가 됨). 라임 2개, 마늘 5쪽, 마요네즈 1/2컵, 소금 1ts, 후추 약간. 모든 준비물을 믹서에 갈아 놓는다.
3. 토마토 2개, 양파 1/2, 마늘 3쪽, 실란트로, 할로피노 2개, 레몬 1개를 모두 잘게 썰어 함께 섞어 놓으면 향긋한 살사가 된다.



작은 사이즈의 콘 토르티야(corn tortilla)를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따뜻하게 덥히고 그 위에 채친 양상추를 올려놓고, 튀긴 생선(먹기 좋게 썰어도 좋음)도 올려놓은 후 미리 준비한 2번 소스를 얹고 그 위에 살사를 올려놓으면 고소하고 신선한 피쉬타코(fish taco)를 맛볼 수 있다.

- 이상희



함께 읽는 동화

“행복한 왕자”



광장 한복판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 몸과 사파이어 눈에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는 멋진 동상을 올려다보며 사람들은 늘 감탄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미처 따뜻한 나라로 떠나지 못한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동상 발밑에서 자려고 날아왔습니다. 깃 속에 머리를 묻고 막 잠을 청하려는 제비의 머리 위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가 고개를 드는 순간,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비가 아니라 왕자님의 황금 뺨과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왕자님, 울고 있나요?”

“제비야, 내가 살아 있었을 땐 궁궐에 살며 슬픔을 느껴 볼 거들도 없었던단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눈물이 자꾸 나오는구나. 지금도 저 건너편 오두막집 밤을 새워 바느질하는 어머니 곁에는 아픈 아기가 누워 있구나. 어머니는 돈이 없어 약도 사 주지 못하고 울고만 있어. 제비야, 내 칼자루의 루비를 떼어 저 집에 갖다 주련?”

제비는 부리로 왕자의 루비를 뽑아 그 오두막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제비가 떨어뜨리고 간 루비를 발견하고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길을 떠나려는 제비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제비야, 하루만 더 머물러 주렴. 저 건너편 다락방의 가난한 극작가 젊은이가 방에 온기도 없이 굶은 손으로 글도 못 쓰고 있구나. 그에게 내 사파이어 눈을 갖다 주련?”

“뭐라고요? 왕자님의 눈을 떼어 내라고요? 전 못 해요.”

“난 괜찮아. 제발 부탁한다.”

마침내 제비는 왕자의 눈에서 사파이어를 떼어 내어 그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겨울이 성큼 다가와서 길을 떠나려는 제비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제비야, 한 번만 더 내 부탁을 들어주렴. 거리 모퉁이 성냥 파는 소녀가 성냥을 도랑에 빠뜨리고 울고 있구나. 하나 남은 내 사파이어 눈을 저 소녀에게 전해 주련?”

“그럼 왕자님은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괜찮아. 난 상관없어. 부탁을 들어주렴. 제비야.”

제비는 왕자의 남은 사파이어 눈을 떼어 내어, 성냥팔이 소녀의 손바닥에 떨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이제 볼 수 없게 된 왕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난 이제 볼 수 없으니, 이 왕국을 날아다니며 네가 본 가엾은 사람들의 얘기를 해 주려무나.”

제비는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엾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거리에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번쩍거리는 마차를 타고 다니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왕자님은 제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의 황금을 떼어 불쌍한 애들에게 나누어 주자꾸나.”

그 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 조각을 떼어내 부리에 물고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자의 몸은 황금이 다 떨어져 나가 아주 흉하게 변해 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그 발밑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때, 왕자의 동상 속에서 뭔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왕자의 심장이 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은 흥축하게 변해버린 행복한 왕자의 동상과 그 발밑에 떨어져 죽은 더러운 제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끌어 내려 공장으로 가져가 녹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진 왕자의 심장은 아무리 녹여도 녹지 않아 쓸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심장을 죽은 제비와 함께 쓰레기장에다 버렸습니다. 그 날 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두가지를 하늘나라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가장 귀한 두 가지는 왕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이 착한 제비야.”

천사는 왕자의 부서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품에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하지만...



〈량강도 아이들〉을 보고

량강도(兩江道)는 중국 국경과 접한 구역으로 압록강, 두만강이 모두 지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부가 포함된 고지대이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사이에 자강도와 함께 끼어있다. 우리가 과거에 알던 지도상에는 없던 도명(道名)이다.

량강도 삼지연군 보천보리가 영화의 무대다.

인민학교 4학년인 종수와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한 동생 종성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학교에선 파동(구리) 수집이 한창이고, 목표량 이상으로 파동을 가져오는 아이들은 선물로 꿈에도 그리던 평양 방문을 하게 된다. 마땅히 가져갈 쇠붙이가 없는 종수는 아버지의 유품인 김일성 기념시계를 팔아 그 돈으로 구리를 사간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평양을 방문하게 된 날, 교장 선생님이 외국 기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외모를 가진 학생들의 평양 방문을 불허한다. 평양에 가보고 싶다는 일념에 무리해서 구리를 구해 냈지만 외모 때문에 평양행이 막힌 종수는 너무나 큰 실망을 한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방향하던 종수는 산속에서 울다 잠이 든다. 날이 새고 잠이 깬 종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애드벌룬에 담아 북한으로 띄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장난감 로봇과 산타 할아버지 의상, 그리고



멜로디 카드가 들어있다.

움직이는 장난감 로봇 때문에 종수는 일약 동네의 스타로 떠오른다. 집에서 싸이며, 기쁨이며, 심지어 메주까지 싸들고 찾아와 장난감 로봇을 한 번 만져 보겠다고 아이들이 줄을 선다. 심한 영양실조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동생 종성도 장난감 로봇을 보곤 벌떡 일어나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영화는 이 장난감 로봇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이제까지 봐온 북한 영화라면 대개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정치와는 거의 무관하다. 주로 아이들이 화면을 채우고, 북한을 다룬 영화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그저 우리나라 60년대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을 다룬 영화처럼 다가온다. 간간이 어른들이 등장해 지도자 동지를 거명하고, 사상이 어떻다느니 할 때나 북한 소재 영화임이 느껴질 뿐이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상황도 묘사하지만, 우리가 듣고 상상해온 만큼 비참하게 그리고 있진 않다. 어려운 가운데 나누는 뜨거운 형제애, 인정이 넘치는 우정, 어린아이의 극진한 할머니 봉양 장면을 보면 남이나 북이나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란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북한의 아이들도 살림살이가 어려워 외양은 찌들었지만, 신기한 것을 보고 열광하는 모습이나 자그마한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남쪽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정성산, 김성훈 공동연출로 돼 있으나 사실은 정성산 단독연출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서태민(탈북자)인 정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도 도맡았으며, 김 감독은 후반 작업을 도왔다. 북한 출신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았으니 북한의 실상이 상당히 근사치로 그려졌을 터이다. 크리스마스가 무언지 산타클로스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날이고,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들려주는 동네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어른으로 나온다. 그의 팔뚝엔 '우정 1950'이란 문신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대접받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아이들이 금지된 크리스마스의 상징 산타 복장을 하고 체제 선전용 율동을 하는 장면은 아이러니의 극치다.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마다 등장하는 '미국놈'이란 용어는 그들의 교육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계란 프라이를 '닭알 지짐'이라고 부르는 북한말이 귀에 감긴다.

영화 포스터에 '7년간의 제작 기간'을 대단한 것처럼 표시했는데, 사실은 제작 여건과 상영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개봉이 지체된 때문이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이 넘친다. 그래서 실소도 자아내고 폭소도 터뜨리게 한다. 사이사이 짝한 장면도 여럿 삽입된다. 전체적으로 다정한 느낌이 드는 영화지만, 결론은 역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딱하다.'이다.

- 최인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믿음 간증 하나

요즘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고난을 주시며,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나니, 나의 삶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작가”이시라는 것과 “나의 삶의 어떠한 일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별나게 놀았던 유년기 시절, 젓가락을 입에 문 채 좁은 벽사이를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가다 떨어져서 물고 있던 젓가락에 무릎이 부딪쳐 목구멍을 찔렀던 아찔한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누나의 교통사고와 여러가지 집안 문제가 겹쳐 힘든 재수생 시절을 보냈을 때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대학시절에도,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에도, 미국 어학 연수중 아내를 만나게 된 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

두가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났으며 정해진 방향으로 저를 연단시켰고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유학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영어성적도 형편없었으며 운전면허증조차 취득할 수 없던 처지였던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학 첫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영어도 서툴고 전공과목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던 저를 연구조교와 수업조교로 선택하게 하시고, 박사후 과정까지 7년간 학비도 면제받고 매달 월급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7년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산호세 주립대에 제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인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는 불교에 심취해 불법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2011년 2월14일, 졸음 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에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제 차만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이 사건을 영적 메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한국의 이진영 집사님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내기 며칠 전 기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편재호가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셨고 저희를 집사님 댁으로 초대하여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 책을 주시면서 실제로 집사님께도 성령님이 임하시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

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몇개월정도 미국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모로 노력해 보았지만 성경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해도,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마음의 준비가 안된 것을 느끼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꼬일대로 꼬인 영주권 문제와 다른 어려운 일들이 많아 세례를 받고 모든걸 믿고 맡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지만 복을 받기위해 확실한 믿음없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뒤 영주권 문제는 더 꼬여만 갔고, H-1 비자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어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진전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던중, 하나님께서 아들 우석이의 절친한 친구, 신이네 가정

을 보내 주셨습니다. 조준호 목사님 부부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그동안 믿겨지지 않았던 많은 의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셨으며, 두 아들까지도 저희 가정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플로리다에서 부터 알고 지내던 정규화 목사님 부부에게조차 예비목원인 저희 부부를 위하여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며 그분의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시는지 알게 되었고, 이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생일날 저희 부부가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였고, 교통사고 난지 만 2년째 되던 2월 14일에 영주권 승인통지서를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온 날 부터 예배드릴 때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세례를 받던 날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을 향해 흐르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에 저희 부부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고개숙여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되심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 편재호



기다려지는 사과

믿음 간증 들



해마다 교회에서 사과를 판다. 가을이 오면, “사과 언제 나오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올해는 9백여 상자를 팔았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오는 사과 좀 사 달라고 해서 사 간다”는 성도도 적지 않으니 이 지역에서 ‘임마누엘 브랜드 사과’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사과를 쌓아 진열해 놓으면, 그냥 사 간다. ‘묻지 마’ 사과가 된 셈이다. 이 사과가 잘 팔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연 사과 맛에 있다. 이 사과를 맛본 사람이라면 맛에 중독이라도 된 듯이, 딴 사과를 맛없어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는 사람도 많다. 과즙이 넘치고, 달고, 덜 시고, 사각사각, 껍질이 비교적 얇아 껍질째 먹기에 좋다.

사과는 과일의 왕이라 할 만큼 영양적 가치와 효능이

우수하다.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미네랄 함량이 높고, 펙틴이라고 하는 식물성 섬유는 대장암 예방, 배변 촉진, 혈당량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효능이 있고, 호르몬 기능을 좋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주며,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사과는 맛과 향기로 사람을 끌고, 영양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십여 년 전, 각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해 바자회를 많이 가졌었다. 바자회에 내놓을 마땅한 물건이 없었던 중, 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과 과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과 맛을 보았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다음 주말에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계속 사과밭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 포장 처리하는 곳을 들리게 되었다. 거기서 사과 한 알을 얻어 맛본 순간, “바로 이거야!” 즉시 과수원 주인에게 50상자를 사겠다고 했다. 50상자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과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큰마음 먹고 던진 요청인데, 주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워낙 과수원 규모가 큰 곳이라 나는 자기의 거래 상대가 안 되었던 모양이었다. 선교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며 매달렸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소유한 사과 과수원은 180에이커에 달했다. 사과를 수확하자마자 큰 회사로 한꺼번에 넘기기에 개인에게는 사과를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과를 팔게 된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셨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 모금활동을 하는 나를 보고 자기도 무언가 선한 일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 판 돈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내게 되었다 한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과 판매 수익금은 성경 보급에 쓰인다. 예수 믿기로 개종한 형제자매들의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지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열린 문 선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우리들 가정에는 성경이 최소한 몇 권씩은 있고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 사는 지역은 빈민 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에 이들의 수입으로 성경을 구입하기란 한 달 임금과 맞먹는 돈이니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성경을 그들은 목말라 기다린다. 그들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사람. 가을이 오면 좋은 맛과 영양을 선사하는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듯이, 기다려지는 사과를 팔면서,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고, 사과 판 돈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주는 그 날을 소망해 본다.

- 김사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 간증



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 까'하는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회 회장을 맡게 되니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침체의 늪에 빠진 나의 심령과 무릎 꿇지 않는 거만함, 기도의 문이 닫혀 버린 내 입술... 이런 때에 그 막중한 권사회 회장이라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여 권사의 본을 보이며 권사회를 이끌어 나갈까 하니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그만 정신 차리고 털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그 후 성령님께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맡겨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를 구호처럼 다짐에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 예배, 에녹회 어르신들 식사 봉사는 꼭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마음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은 항상 다른 감동으로 또 다른 기쁨으로 저

의 심금을 울려 주었고 늘 도전과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권사회 회장은 목사님의 목회를 기도로 섬기며, 에녹회의 부장으로써 매주 수요일, 에녹회 어르신들 점심 봉사를 책임지며, 한달에 한 번씩 김장 담그는 일을 총괄하고, 힘들고 소외된 가정과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수요일 아침이면 어르신들을 한분 한분 소중하게 만나고 에녹회를 돕는 여러 자매님을 만나는 생각에 일찍 잠에서 깨어 기도드린 후 교회로 출발합니다. 9시가 조금 넘으면 어김없이 부엌이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젊고 예쁜 자매님들과 각 조의 권사님들이 나와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사랑과 정성을 듬뿍 넣어, 지지고 볶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요리 전문가들처럼 척척...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면 맛있는 음식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맛있게 잡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잠깐의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지며 합심하여 봉사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김장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금요일부터 시작되지요. 금요일 찻쌀풀을 쑤고 마늘, 생강, 젓갈 준비를 하고 토요일 아침 식사까지 권사회가 준비합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예배 후 교우들과 함께 배추와 무를 썰고 저리고 버무리고

완전 일일 김치 공장으로 가동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땀이 어우러진 맛있는 임마누엘표 김치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맛도 최고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정연순 권사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입니다. 모든 권사님이 합심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수요예배 후 피곤하고 바쁜 신 중에도 특별 기도 모임에 참석, 한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신 목사님들과 여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신실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대로 소외되어 고통 받는 성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 오명자 권사

지 지난해 뜻하지 않게 권사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주님이 제게 바라시는 것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년 동안 제 마음은 교회를 다니고, 목장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뭔가 속마음은 공허했으며 주일예배 시간 잠깐만 하나님을 찾고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화재 사고 이후 나의 마음도 함께 송두리째 불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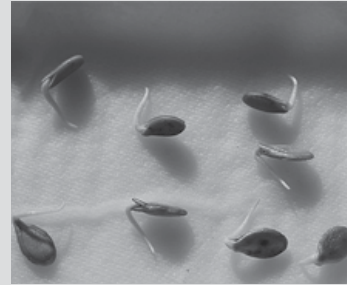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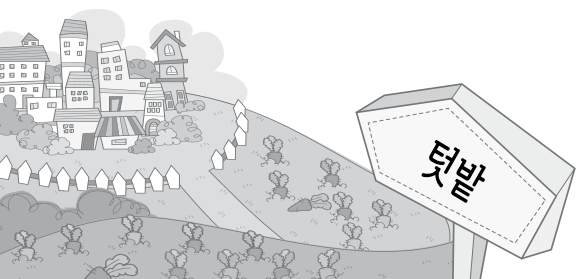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구원의 은

첫번째 이야기 도시 속의 작은 농촌

뒤뜰 한자락을 농촌으로 꾸미기 시작한 지 4년째, 그동안 세 번의 이사를 통해 이삿짐 보다 텃밭 옮기기에 더 많은 정성을 들여온 **농사꾼의 텃밭 만들기** 팁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싶지만, “아파트여서...”, “뒤뜰에 밭 만들 자리가 없어서...”, “밭을 만들려니 엄두가 나질 않아서...” 이런 분들을 위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텃밭



위 스티로폼 박스는 마켓 생선부나 스시집에 가서 쉽게 얻어 오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물구멍을 가위로 여러 개 만들고 흙을 사다가 부으시면 밭 만들기는 끝.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나 앞, 뒤뜰 어느 곳에든 놓아둘 수 있어 손쉽게 상추, 깻잎 또는 오이, 호박재배도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건파종



숙아주기



결순

결순제거



방아다리

방아다리

수건파종

수건파종은 위 그림처럼 페이퍼 타월을 깔고 물이 마르지 않게 보존하며 뿌리가 나오면 작은 화분이나 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밭에 직접 씨앗을 뿌리면 흙이 항상 젖어 있지 않기에 싹이 늦게 나고 너무 많은 씨앗을 뿌리면 숙아주기도 해야 하고 관리가 쉽지 않아, 수건파종으로 뿌리가 나온 것들을 작은 화분으로 옮겼다가 조금 자란 후 모종을 밭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숙아주기

씨앗을 밭에 뿌리고 나면 이렇게 많은 싹이 나옵니다. 아까워서 모두 키우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잎이나 열매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작물은 적어도 45cm 간격, 상추 등은 30cm 간격에 하나 정도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뽑아 모종으로 나누어 주시거나 비빔밥 재료로 쓰면 됩니다. 가장 잘 자라는 것들을 위주로 3-4차례 숙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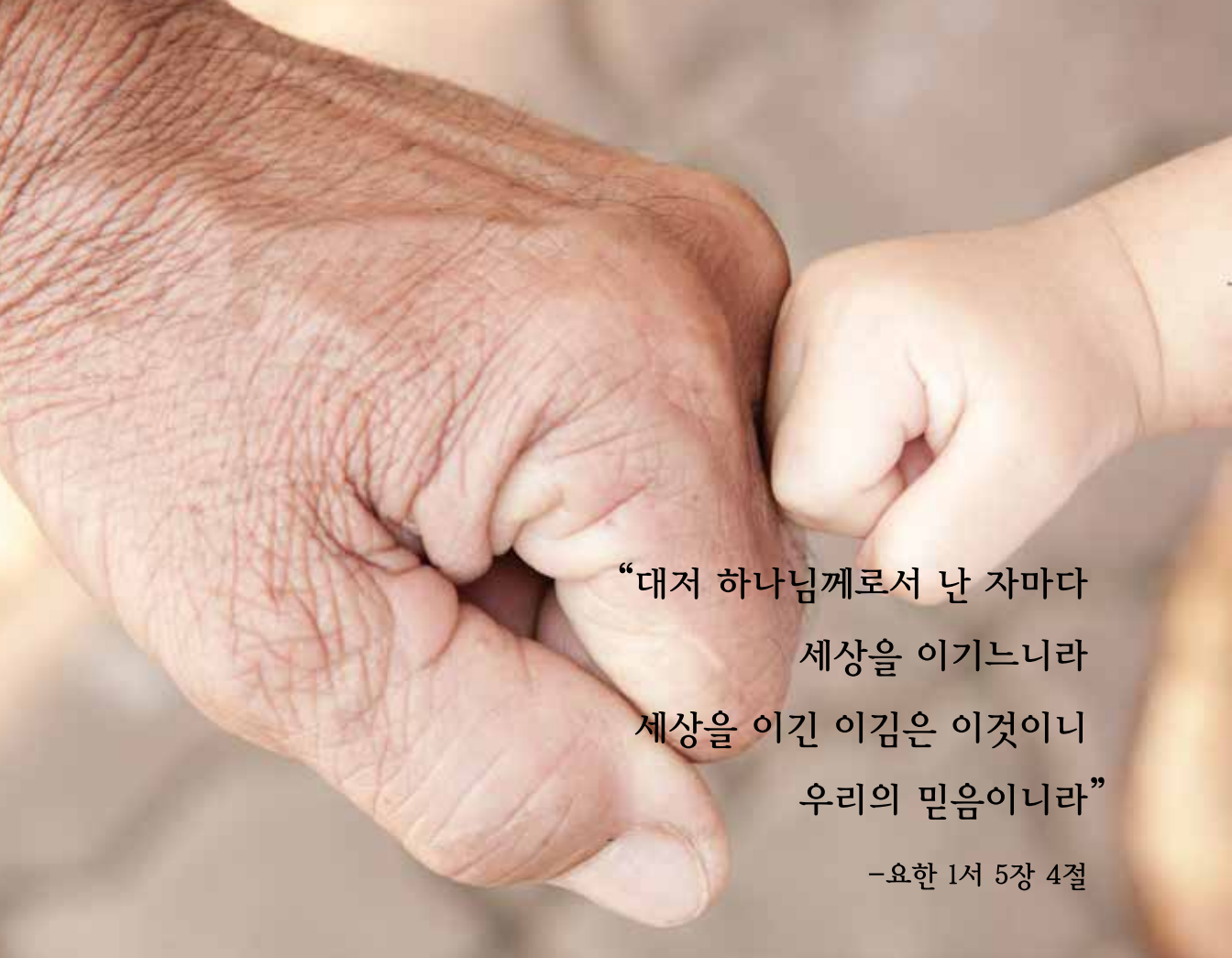
결순제거

사진에 나와 있는 토마토 모종의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결순입니다. 원순(어미순)과 잎사귀 옆으로 나는 순을 결순(아들순)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는 키울 때 모든 결순을 제거합니다. 결순은 따 주지 않으면 원순보다 훨씬 더 굵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 맺는 곳은 많아지지만 결순으로 양분이 가서 도리어 원순에 달린 열매는 자라지 않고 양분이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되니 따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순 제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열매순도 원순에서 나오기에 열매순인지 결순인지 확인 후 따 주세요.

방아다리

고추나 피망 원순에서 첫 번째 Y자 형태로 갈라지는 곳이 생기는데, 이때 두 줄기나 세 줄기로 갈라집니다. 그곳에 맺히는 열매를 방아다리라 합니다. 원순이 튼튼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다리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곳에 양분이 집중되어 원순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므로 방아다리를 제거해 줍니다. 주의 하실 부분은 고추 피망은 계속 Y자 형태로 갈라지며 자라기 때문에 Y자 형태로 갈라진 부분의 열매를 모두 방아다리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토마토는 결순을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고추 피망은 방아다리 밑으로만 결순제거 하시면 됩니다.

도시 속의 작은 농촌을 뒤뜰 한자락에 만들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 보심이 어떨는지요? 주님을 모르는 이웃과 수확물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명 야채전도로 최고입니다. - 편집부 김범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Tel. 408.263.5100/www.kepc.org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유택중
기획	이운선
진행	김정신/장은영
사진	김범진/윤영숙
교정 및 교열	김백미/정현주
표지디자인	홍정희
편집디자인	김은경/박정은/이경아/이요한

*임마누엘의 다음호는 희망호입니다.

